

권두언

그 왕을 위하여(Pro Rege)!

김성수(기독교학문연구소 소장, 고신대학교 총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07년도를 보내고 2008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홀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기학연 모든 식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그분께 돌립니다. 2008년도 한 해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복주심이 기학연 모든 식구들에게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도 기독교 학문의 증진을 위해서 회지 『온전한 지성』의 발간과 콜로키움의 개최, 그리고 『신앙과 학문』 학술지의 학진 등재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 승남 장로님과 간사 여러분들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08년에도 계속하여 기학연이 추구하는 비전과 핵심 가치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서 아낌없는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학연 회원 여러분! 기학연이 추구하는 비전과 핵심 가치는 무엇보다도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선포하고 강조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제도교회의 영역에 제한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입장은 교육과 학문을 포함하여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탐구하는 기독교적 학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유지하고 섭리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통하여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롬 11:36).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문의 영역에도 홀로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기학연이 추구하는 비전과 핵심 가치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재(present reality)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미래적이며, 구속받은 백성은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교육과 학문 활동 보다는 거룩한 삶과 세속적인 삶,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또는 교회적인 삶과 세상적인 삶을 잘못 분리하여 왜곡된 의미의 영적 삶만을 중요시하는 이원론의 오류에 빠져들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실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나라를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될 때에 완전한 형태로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도래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정복하셨으며, 그의 대적들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주적 왕권을 가지시고 지금 여기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에서 풀 타임(full-time)의 왕국 봉사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에서 제외되는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표현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This is mine!)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일 평방 인치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학연의 모든 회원들이 소명으로 인식하면서 봉사하는 교육과 학문 활동도 궁극적으로 “그 왕을 위한”(for the King) 활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학연의 모든 회원들은 그 왕에 대한 소식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이 제공하는 관점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 어떠한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유리되어 이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6)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전통의 선조 가운데 한 사람인 존 칼빈(John Calvin) 역시 강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올바르게 볼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교육과 학문의 주체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법칙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spectators)입니다. 저기에 ‘바라볼 광경’(spectacle)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경’(spectacles)인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독특한 방식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는 올바른 안경을 끼고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물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적 교육이란 어떤 면에서 피교육자들에게 안경을 맞추어주는 과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이란 본질상 교육자가 피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맞추어 주어서 그들이 바라볼 광경 곧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다 올바르게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끔 해 주는 활동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학연의 핵심 가치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교육과 연구와 학문의 영역에서 그 왕을 위한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왕을 위한 삶을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개혁주의 전통은 다른 어떤 전통보다도 ‘법 부여자로서의 하나님’(the image of God as lawgiver)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너무나도 두드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God's Law Word)이라는 말에서 ‘말씀’(word)이라는 단어에다 추가된 ‘법’(law)이라는 단어가 군더기와 같은 중복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어떤 신적인 말씀도 법(law) 외의 다른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순종(obedience)의 관계로 인식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기계적인 순종보다 감사에서 우리나라는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순종의 행위라기 보다는 순종이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배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줄 모르는 무책임자가 되어도 좋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적 교육과 기독교적 학문의 근본적인 에토스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빈 역시 순종을 감사의 표현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와 감사의 명령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순종적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경외와 감사를 통해서 순종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외와 감사는 순종보다 더 심오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가장 아름다운 무대에서 나타나고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경건한 즐거움을 갖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찬양하며 사랑하도록 노력하자”라고 갈파했던 것입니다.

기학연 회원 여러분! 2008년도 한 해도 교육과 학문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고 높이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나가는 영광스런 과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왕을 위한” 우리의 과업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골 3:15-17).

기학연 회원 여러분들의 사역과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shalom)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